



## 중국경제 과도한 부채 우려 지속

이소양 연구원

- 8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(WSJ) 및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중국의 부채규모 급증 및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,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.
  -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국제결제은행(BIS)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이 2008년 117%에서 2012년 170%로 급증하였다고 언급하며, 2011년 미국의 부채비율이 157%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분석함.
  - 향후 10년간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금액은 국내총생산(GDP)의 3분의 1에 해당하며,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21%보다 더 높음.
  - 파이낸셜타임스(FT)도 중국인민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정부,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이 2005년 130%에서 2012년 200%로 급증하였다고 지적함.
    - 중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15조 위안으로 국내총생산(GDP)의 33%를 차지하고 있고, 이는 한국(91%), 미국(85%) 등에 비해 아직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.
  -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,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.
- 앞서 8월 19일 중국 경제참고보(经济参考报)에 따르면 중국 경제학자들도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.
  -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발표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.
    - 중국 국가심계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010년 말 기준으로 10.7조 위안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중국 전 재정부장 상화이청(项怀诚)은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013년 말까지 2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함.

- 중국 회계사무소 신용중허(信永中和) 장커(张克) CEO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함.
- 중국 지방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됨.

■ 또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림자 금융<sup>1)</sup>은 중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됨.

- 그림자 금융 규모는 조사기관마다 그 추정 규모가 다르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최소 11조 위안에서 3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 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를 11~13조 위안이라고 추산하며, 중국GF증권은 30조 위안이라고 추정함.
- 그림자 금융은 주로 정부가 설립한 기반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 부실해질 경우 기반시설 건설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위험이 있음.

■ 8월 제조업 PMI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투자은행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중국의 경착륙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나,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.

- 8월 HSBC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잠정치가 전달 47.7과 시장 전망치인 48.2를 웃돈 50.1로 경기 확장점인 50선을 상회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보임.
- 도이치뱅크(Deutsche Bank) 및 크레디트스위스(Credit Suisse)는 각각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.6%, 7.4%에서 0.1%p, 0.2%p 상향한 7.7%, 7.6%로 수정함.
- 한편, 중국 국가통계국 성라이윈(盛来运)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 금융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,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 금융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힘.

(WSJ, FT 등)

1)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은 은행을 통한 신용창출이 아닌 비은행금융회사, 비금융회사들이 창출하는 신용을 말함.